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뉴스레터

제 284 호

2023년 11월 15일

- 목 차 -

■ 협회 소식

1. Monthly Insights 11 월호 요약
2. 2023 Korea Leaders Summit 개최 안내 11.16 | 그랜드 하얏트 서울
3. 기업과 인권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ROUND II 참여 기업 모집(~12/15)
4. 이주, 비즈니스와 인권 워크숍 안내(11/21)
5. 인권 & ESG 실무그룹 3 차 미팅 결과공유 (10/13, 10/17)
6. 환경 & 반부패 실무그룹 3 차 미팅 결과공유 (10/25, 11/2)
7. GEK 여성 리더스 네트워크 3 차 세션 결과공유 (11/1)

■ 본부 소식

1. UNGC, 지속가능 인프라에 대한 새로운 비즈니스 지침 발표
2. UNGC, 거버넌스 강화 및 부패 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 촉구
3. Forward faster 이니셔티브 달성을 위한 5 가지 방법
4. 직원들의 지속가능성 참여 촉진을 위한 5 가지 방법

■ 회원사 ESG 우수사례

[UNGC 회원사 ESG 우수사례] DRB 동일

■ UNGC & 회원사 뉴스

1. "돈 버는게 다가 아냐"...스타트업들이 'UNGC' 문 두드린 이유
2. KB증권, 국내 금융사 최초 '유엔 CFO연합' 가입
3. SK이노베이션, 이공계 여성 인재 키운다
4. 네이버, 사옥 전력 50%이상 재생에너지로 운영

■ 회원사 안내

1. 신규·재가입 회원
2. CoE 제출회원
3. UNGC 로고 사용정책
4. 한국협회 가입 안내

협회 소식

1. Monthly Insights 11 월호 요약



Global Compact
Network Korea

VOLUME 38 | November 2023

웹에서 보기

Monthly Insights



■ 목차 ■

1. 네이처 포지티브(Nature-Positive): 기업의 생물다양성 경영
2. 전문가 인사이트 |
Tom Butterworth(툼 버터워스) | Head of Ecology at WSP UK
Jenny Merriman(제니 메리먼) | Head of Nature Advisory / Technical Director at WSP UK
Kyle Knopff(카일 크노프) | Wildlife Biologist / Impact Assessment Specialist at WSP
3. 뉴스로 보는 ESG 트렌드
4. 한국협회 소식 | 본부 소식
5. ESG 최신 동향: 클로디아 골딘의 노벨상 수상 연구 | 평화 구축을 위한 기업의 역할

이번 Monthly Insights 의 주제는 ‘네이처 포지티브(Nature-Positive): 기업의 생물다양성 경영’입니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의 Nature Risk Rising: Why the Crisis Engulfing Nature Matters 보고서(2020)에 의하면 전 세계 GDP 의 절반(44 조 달러) 이상이 자연 손실 및 자연에의 의존성으로 인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2022 년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GBF) 도출을 계기로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기업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자연자본(natural capital)은 기업의 새로운 ESG 아젠다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생물다양성 기본 개념과 생물다양성의 위기가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니다.

기업이 생물다양성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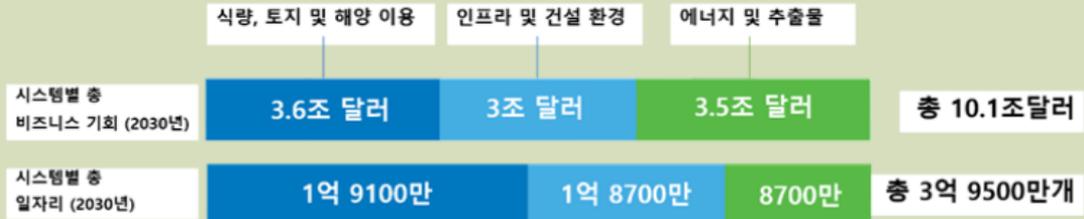
세계경제포럼(WEF)의 **2023 글로벌 리스크 평가(The Global Risks Report)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 내 상위 10대 리스크 중 6 가지가 환경 관련 리스크입니다. 생물다양성의 감소가 4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생물다양성 손실을 리스크로 인식하는 비즈니스 리더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업은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업 운영과 공급망의 영역에서 생물다양성에 실질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즉, 글로벌 경제는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업 및 농업은 작물의 수분(pollination), 침식 제어 및 토양 건강에 영향을 받으며, 제조업은 대량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양질의 물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후, 해충, 질병 통제 등은 모든 분야의 비즈니스의 연속성, 보안 및 부동산의 자산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에 대한 비즈니스의 부정적인 영향은 자연 관련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고객 또는 시장 손실, 큰 비용을 유발할 수 있는 법적 조치 또는 불리한 규제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생물다양성의 감소는 비즈니스 운영에 리스크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세계 보건, 평화, 무역, 경제발전 등 사회의 전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장기(10년)에 걸친 글로벌 리스크 순위(심각도 기준)



전환의 가치

네이처 포지티브 전환에 대한 세계경제포럼(WEF)의 추정치



*출처: 세계경제포럼(2020)

세계경제포럼(WEF)은 네이처 포지티브(nature-positive) 전환으로 식량, 토지 및 해양 이용, 인프라 및 건설 환경, 에너지 및 추출물의 3개 분야에서 10조 1,000억 달러 상당의 비즈니스 기회와 3억 9,5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합니다. 한편 기업들은 사업과 자연자본을 어떻게 연결 짓고 자연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다소 낯설게 느끼고 있습니다. 유엔글로벌 콤팩트(UN Global Compact), TNFD,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BCSD), 세계경제포럼(WEF), 세계자연기금(World Wide Fund for Nature, WWF) 등 80여개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운영되고 있는 연합인 [Business for Nature](#)는 기업이 관련 전략의 주요 단계를 식별할 수 있도록 자연에 대한 네 가지 비즈니스 행동을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Business for Nature](#)는 기업이 운영 및 가치사슬을 혁신해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는 부문별 접근법을 알리기 위해 여러 파트너 기관들과 12개 [부문별 지침](#) 또한 마련하였습니다.

기업 사례



● 아나 비아나(Ana Paula Rodrigues Viana), 나뚜라 규제 업무 관리자(Natura Manager of Regulatory Affairs):

나뚜라(Natura)는 세계에서 가장 큰 화장품 회사로, 브라질의 자연에서 추출한 원료를 연구/개발하며 비즈니스를 운영합니다. 나뚜라는 20년 전부터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숲에서 조달한 원료를 사용한 에코 제품 라인을 출시했습니다. 나뚜라 아마존 프로그램(Natura Amazon Programme)과 'Commitment to Life, a Sustainable Vision for 2030'이라는 사명문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강화했으며, 지난 몇 년 동안 브라질에서 가장 많은 이익공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생물다양성협약(CBD)은 자연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생물다양성 손실을 방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약은 토착민, 전통 지역사회 및 농부들이 혜택을 공유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브라질의 경우 CGEN(Genetic Heritage Management Council)의 이익공유 정책시스템을 통해 기관이 의무적으로 연구 전 관련 지식을 보유한 집단의 동의를 얻도록 합니다. 나뚜라는 2004년 처음 이익공유 정책을 도입한 이래로 브라질에서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이익공유 계약을 통해 약 7,300만 리알(Real, 브라질 화폐단위)을 지역사회와 농부들에게 지급하였고, 작년에는 1,100만 리알을 기부했습니다.

UNGC 아카데미 코스 “생물다양성 기본: 실천을 위한 비즈니스 사례(Biodiversity Fundamentals: The business case for action)”를 바탕으로 작성된 본문에서는 생물다양성의 기본 개념과 함께, 생물다양성 위기가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생물다양성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이유, 네이처 포지티브 전환에 따른 경제적 가치,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전문가 인사이드

기업을 위한 TNFD 주요 인사이트 탐색



Tom Butterworth(통 버터워스)

| Head of Ecology at WSP UK

Jenny Merriman(제니 메리먼)

| Head of Nature Advisory /

Technical Director at WSP UK



Kyle Knopff(카일 크노프)

| Wildlife Biologist /

Impact Assessment Specialist at WSP

자연자본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NFD)는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를 기반으로 자연 부문의 정보 공시를 촉진하기 위해 WWF, 유엔환경계획(UNEP)이 주도하여 2021년에 설립되었습니다. TNFD는 기업 및 금융기관의 활동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공시하기 위한 최초의 국제 프레임워크를 지난 9월 발표하였습니다. 본 전문가 인사이드 코너에서는 글로벌 엔지니어링 및 전문 서비스 기업 WSP의 전문가들로부터 TNFD 권고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봅니다.

기업의 생물다양성 경영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기업에게 있어 최적의 톨과 자료를 활용하여 자연 관련 리스크를 심층적으로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연자본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NFD)를 채택할 이유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본 전문가 인사이드 코너에서는 글로벌 엔지니어링 및 전문 서비스 기업 WSP의 전문가들로부터 TNFD 권고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봅니다.

뉴스로 보는 ESG 트렌드

○ 유럽연합(EU)은 역내외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원료나 부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인권·환경을 침해한 사례가 없는지 점검을 의무화하는 공급망 실사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ESG 경영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10곳 중 6곳은 공급망 실사를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급망 실사 의무화를 준비하지 않거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으로는 ‘실사에 대한 정보 및 내부인식 미흡’(36.6%)을 가장 많이 꼽았고, 실사 의무화 시행 시 가장 중요한 공급망 리스크로는 ‘협력사 근로자의 노동·인권’(30.0%)을 지목했습니다. ESG 경영이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인 만큼, 대응에 미흡한 중소·중견기업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 59% ‘EU 공급망 실사’ 준비 안 돼...노동·인권이 가장 걱정**

스로 보는 ESG 트렌드 코너에서는 ▲중소기업 59% ‘EU 공급망 실사’ 준비 안 돼...노동·인권이 가장 걱정 ▲”높아진 여성 고용률, 남녀 임금 격차, 왜?” 200년 데이터로 입증 ▲청정수소는 얼마나 깨끗한가...미국 ‘수소허브’ 둘러싼 논쟁 등의 기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SG 최신 동향



[GEC] 클로디아 골딘의 노벨상 수상 연구,
'여성이 승리한 이유'를 보여준다

[자세히 보기](#)



[ESG] 평화 구축을 위한 기업의 역할

[자세히 보기](#)

끝으로 'ESG 최신 동향' 코너에서는 지난 10월 9일,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클로디아 골딘(Claudia Goldin)'의 노벨상 수상 연구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분쟁 등으로 전 세계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 속에서 '평화 구축을 위한 기업의 역할'에 대해 살펴봅니다.

Monthly Insights 는 회원사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으로, 매월 첫째 주 수요일 회원사 실무진들에게 발송됩니다. Monthly Insights 와 관련한 문의 및 제안사항은 gckorea@globalcompact.kr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조연경 과장, 직통번호: 070-4327-9767)

[자세히 보기](#)

2. 2023 Korea Leaders Summit 개최 안내 11.16 | 그랜드 하얏트 서울



UN GLOBAL COMPACT KOREA LEADERS SUMMIT 2023

2023년 11월 16일 09:30-17:00
그랜드 하얏트 서울 그랜드볼룸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11월 16일,
『Korea Leaders Summit』을 개최합니다.

『Korea Leaders Summit』은 국내 최대 기업 지속가능성 컨퍼런스로서,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 국내외 지속가능성 이슈 전문가 및 기업 대표들이 연사로 참여해
기업 지속가능성을 내재화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리더들을 위해
UNGC가 추구하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ESG 전반을 아우르는 현안과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올해는 SDGs 달성 목표시점인 2030년까지 절반이 되는 해로,
『2023 Korea Leaders Summit』은 급변하는 시대에 지속가능한 전환의 길을 모색하고
SDG 달성을 위해 우리 기업들이 나아갈 길과 기여 방안을
함께 점검하고 고민하는 공론의 장이 될 것입니다.
UNGC 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과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참여 안내

- UNGC 회원사 참여: 무료 (회원사당 최대 4인)
- 비회원사 기업 및 개인 참여: 기업 50만원 (기업당 최대 3인), 개인 20만원
- 사전 신청: [1차] 10월 27일(금)까지 [2차] 11월 9일(목)까지

| 프로그램(안)

시간		프로그램
09:30 - 09:35	5'	개회사 이동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회장
09:35 - 09:40	5'	축사 Sanda Ojiamb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 (영상)
09:40 - 10:00	20'	기조연설: 기업의 SDGs 달성 기여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명예회장
10:00 - 10:03	3'	Forward Faster 캠페인 (영상) UN Global Compact
10:03 - 10:13	10'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LEAD 그룹 세레모니
10:13 - 10:20	7'	기업과 인권 액셀러레이터 참여사 세레모니
10:20 - 10:35	15'	평화 및 DEI를 위한 음악회 첼리스트 배범준
10:35 - 11:55	80'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8%;"> <p>특별세션 1: ESG 공시와 기업 대응</p> <p>한승수 고려대학교 교수 [Moderator]</p> <p>Patrick de Cambourg EFRAG SRB 의장</p> <p>백태영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위원</p> <p>김광일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장</p> <p>문혜숙 KB금융지주 ESG 본부 상무</p> <p>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p> <p>백주현 공무원연금공단 자금운용단장</p> </div> <div style="width: 48%;"> <p>특별세션 2: ESG 위원회 세션 (Invitation Only, 10:40 - 13:00, 오찬 포함)</p> <p>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p> <p>유연철 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 [Moderator]</p> <p>정재규 한국ESG기준원 정보분석센터장</p> <p>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p> <p>진재승 유한킴벌리 대표이사</p> <p>원종현 국민연금 투자정책전문위원장</p> <p>이동석 삼정KPMG 부대표</p> </div> </div>
11:55 - 12:00	5'	He For She 캠페인 (영상) UN Women
12:00 - 13:15	75'	<p>휴식 및 오찬</p> <p>*13:00-13:15 Climate Ambition Accelerator 수료식</p>
13:15 - 13:22	7'	특별 영상: How to meet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ogether
13:22 - 13:25	3'	SM 엔터테인먼트 아티스트 축전 (영상) 에스파, NCT Dream,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외
13:25 - 14:00	35'	특별 강연: 포용적인 DEI 기업문화 확산 원샷한술(유튜버)

14:00 - 14:05	5'	분과 행사장 이동	
14:05 - 15:15	70'	분과 세션 1 *CoREi 공동주최 넷제로 실현의 핵심: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환 방안 조용성 고려대학교 교수 [Moderator] 신언빈 ERM코리아 파트너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최낙준 삼천리자산운용 그린투자팀장 권오주 현대모비스 그린전략팀 책임 김진일 네이버 Environment팀 매니저	분과 세션 2 *국가인권위원회 공동주최 공급망 인권실사 의무화와 기업의 대응 이은경 UNGC 한국협회 실장 [Moderator] Torsten Safarik 독일연방 경제수출관리청장 송세련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필규 공감 변호사 계인국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 이성용 LG에너지솔루션 팀장 방준섭 DRB동일 매니저
15:15 - 15:25	10'	Coffee Break - 휴식 및 네트워킹, 분과 이동	
15:25 - 16:35	70'	분과 세션 3 네이처 포지티브 달성을 위한 생물다양성 전략 이동근 서울대학교 교수 [Moderator] Erin Billman SBTN 사무총장 오일영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국장 이재호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 위은실 포스코 ESG그룹 리더 양해준 우리금융지주 차장 이윤정 김앤장 변호사	분과 세션 4 지속가능금융의 현주소 및 활성화 방안 임대웅 UNEP FI 한국대표 [Moderator] Matthew McAdam PRI APAC 이사 윤재숙 한국거래소 부장 이호섭 자본시장연구원 실장 이형석 현대캐피탈 재경본부장 황수연 LG에너지솔루션 IR담당 김정태 MYSC 대표
16:35 - 16:40	5'	메인 행사장 이동	
16:40 - 16:45	5'	특별 메시지: UN 반부패 협약 20주년 메시지 Brigitte Strobel-Shaw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부패 및 경제범죄국장	
16:45 - 16:55	10'	럭키 드로우 이벤트	
16:55 - 17:00	5'	폐회사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특별세션 및 분과세션 프로그램

[특별세션 1] ESG 공시와 기업 대응 (10:35~11:55)

-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표준 소개 및 한국 기업에의 시사점 공유
- 투자자, 평가사, 기업, 정부 관점에서 ESG 공시 현안 및 인사이트 공유
- ESG 정보 공시 의무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 대응사항 토의

시간	프로그램
10'	발표 1. CSRD 및 ESRS 공시 표준 소개와 한국 기업에의 시사점 - Patrick de Cambourg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 지속가능성보고위원회 의장 (영상)
15'	발표 2.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동향과 ISSB 기준의 시사점 및 향후 계획 - 백태영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위원 (영상)
45'	패널 토론: ESG 공시와 기업 대응 - 좌장: 한승수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패널: 김광일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문혜숙 KB금융지주 ESG본부 상무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백주현 공무원연금공단 자금운용단장
10'	현장 질의응답

[특별세션 2] ESG위원회 및 위원들의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 (10:40~13:00)

- SDGs 달성 기여 및 ESG 경영 추진을 위한 리더십의 역할과 과제
- ESG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책임 및 역할
- ESG위원회 운영 역할에 관한 사례 공유 및 제언

시간	프로그램
5'	세션 소개
5'	반기문 제8대 유엔사무총장 및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명예회장
25'	ESG위원회 위원의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 - 정재규 한국ESG기준원 ESG정보분석센터장
45'	토론: ESG위원회 운영과 역할에 관한 제언 - 좌장: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 패널: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및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이사 진재승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및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이사 원종현 국민연금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위원장 이동석 삼정KPMG 부대표(KPMG ASPAC ESG Head)
60'	오찬

[특별강연] 포용적인 DEI 기업문화 확산 (13:25~14:00)

- 기업 내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 및 문화 소개
- 다양한 인종, 성별, 종교, 장애, 성적 지향의 직원 및 파트너를 포용하는 기업 환경 조성을 위한 인식 제고 및 소통의 장 마련

시간	프로그램
5'	세션 소개
5'	영상: 기업 내 DEI 정책 경험 공유 및 제언 - 박유민 DRB동일 매니저, Simon 콘텐탈 과장, Nuzulya CJ제일제당 과장
30'	강연: 포용적인 DEI 기업문화 확산 - 김한솔 (유튜버 원샷한솔)

[분과 세션 1] 넷제로 실현의 핵심: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환 방안 (14:05~15:15) *CoREi 공동주최

-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방안 논의 및 사례 소개
- 한국의 재생에너지 전환에 있어 민간 부문의 역할 논의
- 공급망 재생에너지 전환 지원 방안 논의

시간	프로그램
20'	발표: 기업 넷제로 전략 퍼즐의 핵심, 공급망 재생에너지 확대 - ERM코리아 신언빈 파트너
50'	패널토론: 기업 재생에너지 전환 방안 - 좌장: 조용성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 패널: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최낙준 삼천리자산운용 그린투자팀장 권오주 현대모비스 그린전략팀 책임 김진일 네이버 Environment팀 매니저

[분과세션 2] 공급망 인권실사 의무화와 기업의 대응 (14:05~15:15) *국가인권위원회 공동주최

- 독일 공급망 실사법 시행에 따른 운영 현황 및 시사점 파악
- 국내기업의 공급망 인권실사 진행 사례 공유
- 국내외 공급망 실사 관련 동향에 따른 기업 대응방안 논의

시간	프로그램
3'	인사말 및 세션 소개
10'	발표 1. 독일 공급망 실사법 현황 및 한국 기업의 시사점 - 토르스텐 사파리크(Torsten Safarik) 독일 연방경제·수출관리청 청장
15'	발표 2. 공급망 실사와 기업 인권 관련 분쟁의 대안적 해결방안 - 계인국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교수
42'	패널 토의 - 좌장: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실장 - 패널: 송세련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이성용 LG에너지솔루션 팀장 방준섭 DRB동일 매니저 신유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분과 세션 3] 네이처 포지티브 달성을 위한 생물다양성 전략 (15:25~16:35)

- 네이처 포지티브 목표 설정 이니셔티브 SBTN(Science Based Target Network) 소개
- 자연기반해법(NBS)과 TNFD 최종 공시 프레임워크 내용 공유
- 기업의 생물다양성 과제 및 대응사항 토의

시간	프로그램
10'	발표 1. SBTN(Science Based Target Network) 소개 - 에린 빌먼(Erin Billman) SBTN 사무총장 (영상)
20'	발표 2. 자연기반해법(NBS) 및 TNFD 최종 공시 프레임워크 소개 - 오일영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한국협력관 국장
28'	패널토론: 기업의 생물다양성 과제와 준비사항 - 좌장: 이동근 서울대학교 교수 - 패널: 이재호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 위은실 포스코 ESG그룹 리더 양해준 우리금융지주 차장 이윤정 김앤장 변호사
12'	패널 질의응답

[분과 세션 4] 지속가능금융의 현주소 및 활성화 방안 (15:25~16: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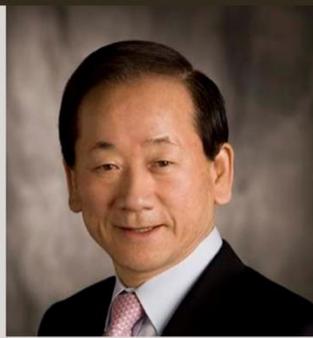
-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가능금융의 역할과 글로벌 동향 파악
- 지속가능금융제도 소개 - 한국거래소 사회책임투자채권
- 지속가능금융을 적용한 자본조달 사례 공유

시간	프로그램
1'	세션소개 - 임대웅 UNEP FI 한국대표 겸 아세안 자문관
10'	발표 1. 지속가능금융의 역할과 글로벌 시장 현황 - 매튜 맥아담(Matthew McAdam) PRI Director - Asia Pacific (영상)
10'	발표 2. 국내 지속가능금융 제도 현황 - 윤재숙 한국거래소 부장
7'	발표 3. 지속가능금융을 통한 자본조달 사례①: 현대캐피탈 - 이형석 현대캐피탈 전무
7'	발표 4. 지속가능금융을 통한 자본조달 사례②: LG에너지 솔루션 - 황수연 LG 에너지솔루션 IR담당
35'	패널토론: 지속가능금융 활성화 방안 - 좌장: 임대웅 UNEP FI 한국대표 겸 아세안 자문관 - 패널: 윤재숙 한국거래소 부장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실장 이형석 현대캐피탈 재경본부장 황수연 LG에너지솔루션 IR 담당 김정태 MYSC 대표

주요 연사 소개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명예회장



이동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회장,
前 국제로타리 회장



산다 오잠보 Sanda Ojiamb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



파트릭 드 캉부르그 Patrick de Cambourg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
지속가능성보고위원회 의장



토르스텐 사파리크 Torsten Safarik
독일 연방 경제·수출관리청
(BAFA) 청장



에린 빌먼 Erin Billman
Science Based Targets Network
(SBTN) 사무총장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前 외교부 기후변화 대사



**브리짓 스트로벨쇼
Brigitte Strobel-Shaw**
UNODC 부패 및 경제범죄 국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이사



진재승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이사



백태영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위원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백주현
공무원연금공단
자금운용단장(CIO)



매튜 맥아담
Matthew Mcadam
PRI Director, Asia-Pacific



정재규
한국ESG기준원
ESG정보분석센터장



송세련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원종훈
국민연금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위원장



임대웅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
(UNEP FI) 한국 대표 겸 아세안 자문관



김광일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이동석
삼성KPMG 부대표
KPMG ASPAC ESG Head



문혜숙
KB금융지주
ESG본부 상무



이형석
현대캐피탈
재경본부장



조용성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이동근
서울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한승수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오일영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한국협력관 국장



신언빈
ERM 코리아
파트너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 실장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실장



계인국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교수



김정태
MYSC
대표



윤재숙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부장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CDP 한국위원회 수석연구원



황수연
LG에너지솔루션
IR담당



이윤정
김앤장
변호사



이성웅
LG에너지솔루션
ESG 팀장



신유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최낙준
삼천리자산운용
그린투자팀장



위은실
포스코
ESG그룹 리더



원샷한솔
유튜버



양해준
우리금융지주
차장



권오주
현대모비스
그린전략팀 책임



방준섭
DRB동일
매니저



김진일
네이버
Environment팀 매니저

Summit 발간물



문의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Tel. 02-749-2149/2150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자세히 보기](#)

3. 기업과 인권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ROUND II 참여 기업 모집(~12/15)

UN GLOBAL COMPACT BUSINESS & HUMAN RIGHTS ACCELERATOR

기업과 인권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인권 존중에 대한 약속에서 이행으로

모집 중(~12월 15일) ▶

본 프로그램은 Shift와 함께 합니다.

Shift

기업과 인권 액셀러레이터(Business & Human Rights Accelerator)는 중대한 인권 영향을 식별하고, 지속적인 실사 절차 개발 및 실행 가능한 계획 수립을 통해 참여 기업의 인권 여정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6개월 과정의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은 워크숍 및 온디맨드 세션을 통해 인권 실사 절차를 수립하고, 고유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전 세계 40개국 이상의 지역협회에서 운영되는 기업과 인권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은 총 여섯 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로그램 전체에 걸쳐 UNGC 아카데미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네 번의 온디맨드(On-demand) 세션, 국내 참여 기업과 함께 진행되는 워크숍, 그리고 프로그램 파트너인 Shift에서 진행되는 여섯 번의 글로벌 심화 과정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합니다. UNGC 회원사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는 본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며, 모집 마감일은 **12월 15일(금)**입니다.

참여 혜택

기업과 인권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 인권 여정 중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인권 실사 여정을 진전시킬 수 있습니다.
- 인권 영향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인권 영향을 완화할 행동 계획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 고충 처리 메커니즘과 구제 절차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인권 실사 여정을 보고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 워크숍을 통해 동료 기업과 사례를 공유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 수료 기준을 충족한 경우, 수료증이 제공됩니다.

참여 대상

UNGC 회원사 및 가입 의사가 있는 기업의

- 액셀러레이터 활동 및 행사에 참석할 '담당자' 2명(지속가능성, 인사, 공급망 관리, 기업 리스크 관리 관련 부서 소속)
- 프로그램 발전 및 지원 제공, 고위급 행사 참여를 위한 C-level '챔피언' 1명

프로그램 일정

내용	참여 기업 모집	런칭 세레모니	kickoff 및 OT 세션	모듈 1 ~ 6
일정	'23년 9월 ~ 12월 15일(금) 1차 마감: 10월 25일(수) 2차 마감: 12월 15일(금)	'23년 11월 16일(목) Korea Leaders Summit ※ 1차 모집 기한(10.25.) 내 신청 기업에 한하여 참여 가능	'24년 2월 중	'24년 2월 ~ 6월 ※ 프로그램 내용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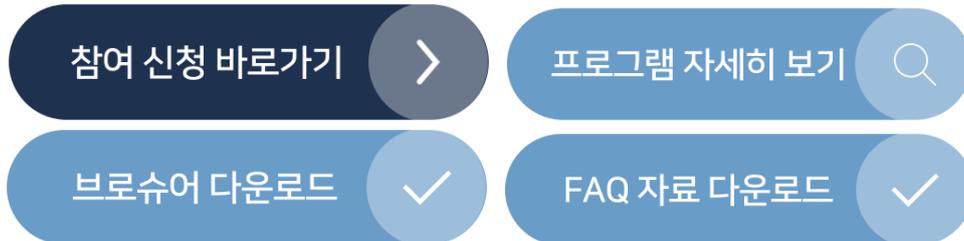
프로그램 내용

기업과 인권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은 총 6개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듈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온라인(UNGC 아카데미 플랫폼 내 온디맨드 세션 4회 및 글로벌 심화과정 6회), 오프라인(참여 기업 워크숍 3회)

<p>2024년 2월</p> <p>모듈 1</p> <p>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 및 인권 실사에 대한 이해 증진</p> <p>온디맨드 세션 1회 글로벌 심화 과정 1회</p>	<p>2024년 3월</p> <p>모듈 2</p> <p>영향 평가를 위한 가치사슬 파악 및 잠재적 인권 영향 식별</p> <p>온디맨드 세션 1회 글로벌 심화 과정 1회 워크숍 1회(모듈 1&2)</p>	<p>2024년 4월</p> <p>모듈 3</p> <p>우선순위의 중대한 인권 영향 선정 및 해당 영향에 대한 활동 이해</p> <p>온디맨드 세션 1회 글로벌 심화 과정 1회</p>
<p>2024년 5월</p> <p>모듈 4</p> <p>우선순위 인권 영향에 대한 인권 실행 계획 수립, 적용 및 추적</p> <p>온디맨드 세션 1회 글로벌 심화 과정 1회 워크숍 1회(모듈 3&4)</p>	<p>2024년 5월</p> <p>모듈 5</p> <p>영향 받는 이해관계자에게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방법 학습</p> <p>온디맨드 세션 1회 글로벌 심화 과정 1회</p>	<p>2024년 6월</p> <p>모듈 6</p> <p>구제 및 고충처리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 증진</p> <p>온디맨드 세션 1회 글로벌 심화 과정 1회 워크숍 1회(모듈 5&6)</p>

※ 프로그램 일정 및 모듈별 내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여 신청서는 영문으로 작성바랍니다.

※ 문의: 안일곤 과장 (070-4327-5057, aig@globalcompact.kr)

자세히 보기

4. 이주, 비즈니스와 인권 워크숍 안내(11/21)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는 국제이주기구(IOM), 대한상공회의소(KCCI)와 공동으로 “글로벌 공급망 내 윤리적 고용을 증진”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국제적인 수준에서 정립된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윤리적인 채용 관행을 마련하는 것에 국내 기업들이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에 대하여 제고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주, 비즈니스와 인권

Migration, Business and Human Rights

글로벌 공급망 내 윤리적 고용 증진을 위한 워크숍

일시 2023. 11. 21. (화) / 2:00 PM - 6:00 PM

장소 르메르디앙 서울 명동, 4층 미드센추리 룸 1&2

대상 국내 기업 관계자 60인

언어 한국어 · 영어 (동시 통역 제공)

참가자 선정 2023. 11. 06. (월) 온라인 접수 마감
2023. 11. 09. (목) 대상자에 이메일 안내

참가 신청 링크

<https://bit.ly/3S5mBgl>



세부 일정

시간	세부 내용
<p>13:40 – 14:00 (20 분)</p>	<p>참가자 등록</p>
<p>14:00 – 14:15 (15 분)</p>	<p>인사 말씀 및 행사 소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티븐 해밀턴 (Steven Hamilton), IOM 한국대표부 대표 •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원장 • 유연철, 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
<p>14:15 – 15:15 (1 시간)</p>	<p>제 1 세션: 글로벌 공급망 내 공정하고 윤리적인 고용에 관한 국제 동향 및 노력</p> <p><u>발제 (20 분)</u> “국제 공급망 내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이해 및 공정하고 윤리적인 고용의 영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나스타샤 비니첸코 (Anastasia VYNNYCHENKO), IOM 베트남대표부 윤리적 고용 증진 (CREST) 프로젝트 매니저 <p><u>패널 토론 (25 분)</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이스 초 (Joyce CHAU), Amfori 아태지역국장 • 구나 수브라마니암 (Guna SUBRAMANIAM), Institute for Human Rights and Business (IHRB) 이주 노동자 프로그램 동남아 지역 자문 • 카산드라 잔 탈봇 (Cassandra Jeanne TALBOT), 유럽상공회의소 (ECCK), 물류 및 운송 · 지속가능성 · 관광산업 위원회 과장 <p><u>질의응답 (15 분)</u></p>
<p>15:15 – 15:45 (30 분)</p>	<p>휴식 및 네트워킹</p>
<p>15:45 – 16:30 (45 분)</p>	<p>제 2 세션: 국내 및 해외 공급망에서의 이주 노동자 인권 증진 현주소</p> <p><u>발제 (30 분)</u></p>

	<p>“기업의 공급망 내 노동자들의 인권 실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은경, UNGC 한국협회 실장 <p>“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노동착취 인신매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선영,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조사과 이주인권팀장 <p>질의응답 (15 분)</p>
<p>16:30 – 17:15 (45 분)</p>	<p>제 3 세션: IOM 의 아시아 내 민간기업과의 이니셔티브 및 선례</p> <p>발제 (30 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나스타샤 비니첸코 (Anastasia VYNNYCHENKO), IOM 베트남대표부 윤리적 고용 증진 (CREST) 프로젝트 매니저 <p>질의응답 (15 분)</p>
<p>17:15 – 17:30 (15 분)</p>	<p>행동 촉구: 향후 협력을 위한 토론</p> <p>글로벌 공급망 내 이주 근로자 및 현지 근로자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전체 참가자가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중재 토론</p>
<p>17:30 – 17:45 (15 분)</p>	<p>폐회사</p>

*세부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문의: 안일곤 과장 (070-4327-5057) / gckorea@globalcompact.kr

자세히 보기

5. 인권 & ESG 실무그룹 3차 미팅 결과공유 (10/13, 10/17)

[인권 실무그룹 3차 미팅] 결과 공유

일시: 2023년 10월 13일(금), 오후 2시 ~ 5시

장소: 바비엠2 교육센터 3층 D룸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10월 13일(금) 3차 인권실무그룹을 개최하였으며, 총 21개 기업에서 36명의 실무진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인권영향평가>를 주제로 한 이번 실무그룹에서는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글로벌 동향과 기업의 과제, 기업과 인권 지침서 내용 등을 살펴보고, 기업의 인권영향평가 사례 발표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및 참여기업/기관의 인권영향평가 현안 공유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참여기업/기관(가나다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근로복지공단, 두산, 두산에너지빌리티, 두산퓨얼셀, 법무법인(유)지평, 삼성중공업,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팬택씨앤아이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콜마, 한국콜마홀딩스, 한독, DRB동일, KCC글라스, LG디스플레이, NAVER, SK실트론

1. 인사말

UNGC 한국협회 유연철 사무총장은 실무그룹에 참여한 회원사 실무진을 환영하며, AI 등 디지털 기술의 인권적 함의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중요성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더 많은 기업과 기관에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가올 AI 시대를 대비하여 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함으로써 인권침해나 차별 등의 부작용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하며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UNGC 한국협회 유연철 사무총장



2. 국내외 인공지능 관련 인권영향평가 동향과 기업의 과제

먼저 한동대학교 유승익 연구교수(국가인권위원회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입방안 연구 책임자)의 국내외 인공지능 관련 인권영향평가 동향과 기업의 과제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러 국가와 국제기구에서 인공지능과 인권영향평가 관련 지침 및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특히 EU에서는 권고를 넘어 법제화 되어 가는 단계임을 강조하며,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작업한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EU의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평가 목록', 캐나다의 '알고리즘 영향평가', 영국의 '인공지능 조달지침', 미국의 '알고리즘 책무성 법' 등 해외의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더불어, 고위험 인공지능과 공공기관이 활용하는 인공지능을 대상으로 내·외부 독립적 조직이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체크리스트 형식의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안)를 소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인공지능 시대의 흐름에 대비하여 기업에서는 인공지능과 자동화로 소멸되는 일자리에 대비해야 하고, 인공지능 리터러시(Literacy)를 갖춘 인재를 육성해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동대학교 유승익 교수



UNGC 한국협회 안일곤 과장

3. 기업과 인권 지침서 실사 가이드라인 소개

이어 UNGC 한국협회 안일곤 과장의 '기업과 인권 지침서(이하 지침서)' 소개 및 인권영향평가 활용 방법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지침서는 2021년 UNGC 한국협회에서 발간하여 지난해 11월 최신 동향을 담아 개정하였고,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UN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GPs) 및 주요 국가의 기업 인권 관련 제도가 요약되어 있어 국내외 동향파악과 함께 인권영향평가 사전조사를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국제규범과 각종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구성된 지침서 내 12개 분야 101개 체크리스트와 우선순위 이슈 선정 방법 및 기업에서의 실제 활용 사례 등을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4년 2월부터 7월까지 진행되는 '기업과 인권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내용을 소개하고, 이러닝 코스와 온라인 모듈, 워크숍 등의 활동을 통해 중대한 인권 영향 식별 및 실사 절차와 계획 수립 방법을 학습함으로써 기업의 실제적인 인권 내재화를 추진하도록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4. 인권영향평가 기업 사례 발표 - NAVER, 한국가스기술공사

다음 순서로 기업의 인권영향평가 사례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NAVER의 오성영 담당은 이사회 직속 인권경영 전담조직으로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Human Rights팀을 신설하여 운영 중임을 소개하며, 인권경영 이행의 기반에 있어 △ UNGPs, △ UNGC 10대 원칙,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World Benchmark Alliance, △Core Social Indicators를 바탕으로 인권경영 로드맵과 정책을 수립했으며, 기업들에게 권고했습니다. 또한, IT기업이라는 NAVER의 특성상 공급망보다는 구성원과 서비스 이용자에 초점을 맞추어 인권경영을 이행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 이후로 많은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지속적으로 구성원의 긍정 응답율이 높아진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한국가스기술공사 최인호 과장은 2019년부터 시작된 한국가스기술공사의 인권영향평가 사례를 소개하며, 인권경영 업무를 담당부서에서만 수행하지 않고, 리더십과 유관 부서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교육을 통해 내부 인식을 변화시킴으로써 프로세스에 대한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2022년부터는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지표 구성 전에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피드백을 반영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올해에는 현장 및 지사 중심의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다고 밝혔습니다.



NAVER 오성영 담당



한국가스기술공사 최인호 과장

5. 질의응답 및 현안 공유

마지막으로는 UNGC 한국협회 이은경 실장의 진행으로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질의응답 및 현안 공유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권경영 및 ESG, 인사, 공급망 등 다양한 부서로 구성된 참석자들은 △ 공급망 인권 체크리스트 구성, △ 공급망 이슈가 큰 기업(예: 제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예: IT업)의 인권 이슈 차이점, △ 인권영향평가와 인권실태조사의 순서, △ 인권 리스크 식별 후 개선사례, △ 최근 인권영향평가 관련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하며 활발한 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끝으로 Korea Leaders Summit 2023과 ESG위원회 세션, 아동권리 포럼 등 한국협회에서 진행 중인 활동에 대하여 소개하며 3차 미팅을 마쳤습니다.



UNGC 한국협회 이은경 실장



ESG 실무그룹 3차 미팅 결과 공유

일시: 2023년 10월 17일(화) 오후 2시~5시

장소: 바비엡2교육센터 3층 컨퍼런스룸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10월 17일(화) 2023년 ESG 실무그룹 3차 미팅을 개최하였습니다. 약 30개 기업·기관에서 40여 명의 실무진이 참석한 가운데, <ESG KPI 수립 및 운영>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기업 ESG KPI 지표 설정 및 평가' 발표와 '조직 ESG KPI 운영'에 관한 기업 사례를 들어본 뒤, 참여사 간 현안 공유 시간을 통해 각 기업·기관별 ESG KPI 운영 현황 및 계획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참석기관/기업(가나다순): 넥센타이어, 노을, 동일고무벨트, (주)두산, 두산에너지빌리티, 두산퓨얼셀, 롯데렌탈, 삼성중공업, 새마을금고중앙회, 애쿠온캐피탈, (주)연우, 카카오, 코오롱인더스트리(주), 팬택씨앤아이엔지니어링,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콜마, 한국콜마홀딩스, 환경재단, DL이앤씨, F&F홀딩스, HD현대인프라코어, HD현대일렉트릭, HL만도, HMM, KB증권, KCC글라스, LG디스플레이, LX세미콘, SK실트론 (29개사)

1. 인사말

먼저 UNGC 한국협회 유연철 사무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실무그룹에 참여한 UNGC 회원사 실무진을 환영하였습니다. 특히 조직 내 실질적으로 ESG를 내재화 하기 위해 ESG를 핵심성과지표(KPI) 및 보상제도와 연결하려는 움직임이 있음을 설명하며, "ESG KPI를 수립은 조직 전체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여러 부서가 협업하여 진행하는 어려운 과제이기에, 금번 미팅을 통해 각 사의 ESG KPI 운영 현황과 계획에 대해 공유하며, 추진 과정에서의 고민과 경험을 서로 나누고 학습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참석자들을 격려했습니다.



UNGC 한국협회 유연철 사무총장

2. 기업 ESG KPI 지표 설정 및 평가

이어서 '기업 ESG KPI 지표 설정 및 평가'를 주제로 PwC컨설팅의 운영창 파트너가 강의하였습니다. 우선 ESG 공시 등 최근 ESG 트렌드를 소개하며 KPI 부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 위원회(ISSB)의 공시 항목 중 지배구조(성과 지표가 보수 정책에 반영된 방식) 및 전략(단기 재무제표 및 단기, 중기, 장기 재무계획에 미치는 영향) 등의 영역에 KPI와 연결지을 수 있는 요소가 많으며, 지속적으로 기업의 활동을 측정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 전략, 재무, 운영 프로세스 내 ESG가 통합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활동 단위로까지 KPI가 연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장기 방향성 및 ESG 전략과 보상이 연계되어야 하며, 현재 선도기업에서는 ESG KPI가 중장기 인센티브와 연계되는 경향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슈나이더(Schneider), 유니레버(Unilever), BASF 등 글로벌 기업의 ESG KPI 운영 사례와 LG그룹의 ESG Index를 소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PwC의 임팩트 밸류에이션 및 TIMM(Total Impact Measurement Management) 방법론을 설명하며, ESG 성과 및 임팩트의 재무적 가치 측정 방법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또한 "ESG 경영의 본질을 고려할 때 ESG KPI는 경영 관리에 녹아 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며, "국내 기업 역시 ESG 성과 측정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상과 실제로 연계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ESG 내재화를 위한 변화의 흐름에 동참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PwC 컨설팅 운영창 파트너



3. 조직 ESG KPI 운영 사례

다음으로 SK이노베이션 김현문 팀장이 조직 내 실제 ESG KPI를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ESG KPI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CEO, 이사회, 실무조직의 공감대가 필수라고 강조하며, ESG KPI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업/Staff 부서로까지 KPI가 부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겪은 내부 설득 및 기준 수립의 경험을 나누며, ESG KPI 운영을 고민하고 있는 참여사가 고려해야 할 점을 공유하였습니다. 한편 ESG KPI를 운영할 때 평가와 보상이 연계되어야 조직 내 ESG가 효과적으로 내재화될 수 있음을 설명하며, 이 때 기존 성과관리 담당조직과의 역할 구분 및 ESG KPI의 적정 비중에 대한 고민도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ESG KPI 수립의 선행 단계로서 핵심과제 및 중점영역 선정 사례와 이에 기반한 SK이노베이션의 단기 및 중기 목표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이후 사업분야 특성 상 매출액과 ESG 경영성고가 반비례 관계에 있어 고민이라는 기업의 질문에 대해서는 "결국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지속가능하게 바꿀 수 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1년 단기 KPI가 아닌 2025년, 2030년까지의 장기적인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평가 조직 간 R&R 세팅 시에는 어느 정도 탑-다운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장기 인센티브와 같은 보상제도의 운영은 HR 조직 등과의 협업이 필수"라고 덧붙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 김현문 팀장



질의응답(Q&A)

4. 참여시간 현안 공유

마지막 시간에는 UNGC 한국협회 이은경 실장의 진행으로 참여사 간 ESG KPI 운영 현황 및 계획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참여사들은 ESG KPI와 관련된 △중대성 평가, △ESG 핵심지표 및 과제 선정, △중점 과제별 KPI 데이터 관리, △지표 정의, △ESG 성과와 임직원 보상 연계, △정량/정성평가 항목, △KPI 적용 범위, △ESG KPI 고도화 로드맵 등 각 사의 운영 사례를 공유하며 동료 학습 및 벤치마킹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끝으로 Korea Leaders Summit 2023과 ESG 위원회 세션, GEK 여성 리더스 네트워크 3차 세션, 환경 및 반부패 실무그룹 등 참여 가능한 행사 및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회원사의 참여를 독려하며 미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UNGC 한국협회 이은경 실장



ESG 실무그룹 참여사 간 현황 공유



3 차 미팅을 끝으로 2023 년도 인권 실무그룹 및 ESG 실무그룹 활동이 마무리되었습니다. 2024 년에도 우리 기업의 지속가능성 내재화 및 역량강화를 위해 실무그룹을 이어 나갈 예정이니, 2024 년 각 실무그룹(1 분기 중 모집)에도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

인권 실무그룹 - 안일곤 과장 (070-4327-5057) / gckorea@globalcompact.kr

ESG 실무그룹 - 안순구 과장 (070-8833-9760) / gckorea@globalcompact.kr

자세히 보기

6. 환경 & 반부패 실무그룹 3 차 미팅 결과공유 (10/25, 11/2)

환경 실무그룹 3차 미팅 결과 공유

2023년 10월 25일

일시: 2023년 10월 25일(수) 오후 2시~5시

장소: ENA스위트 호텔 3층 R.ENA 컨퍼런스룸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10월 25일(목) 2023년 3차 환경 실무그룹을 개최하였으며, 총 26개의 기업에서 40여 명이 넘는 기업 실무진들이 참석하였습니다. <기업의 환경경영 및 목표/지표 관리>를 주제로 한 본 실무그룹에서는 복잡화 · 고도화되는 기업 환경경영 과제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강의를 들어보고, 관련 기업 사례발표를 통해 동료학습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각 참여기업 및 기관의 환경 정책 및 목표/지표관리 현안을 공유를 통해 상호 교류하였습니다.

*참여기관/기업(가나다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금호타이어, 동일고무벨트, 두산에너빌리티, 두산퓨얼셀, 롯데렌탈, 삼성중공업, 유한킴벌리, 위메이드, 코오롱인더스트리, 팬택씨앤아이엔지니어링, 팬택씨앤아이인프라서비스, 포스코이앤씨, 한국콜마, 한국콜마홀딩스, (주)한독, CJ제일제당, DL이앤씨, DRB동일, F&F, HD현대일렉트릭, HL만도, KCC글라스, LG디스플레이, LX세미콘, SK텔레콤 (26개사)

1. 인사말

먼저 유연철 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실무그룹에 참여한 UNGC 회원사 실무진을 환영하고, 본 실무그룹을 통해 환경 목표 및 지표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사이트를 얻어가길 바란다면 “국내 기업들이 앞장서 관련 목표를 설정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해 나감으로써 글로벌 지속가능성 리더로 역할을 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UNGC 한국협회 유연철 사무총장

2. ESG 시대의 기업의 환경경영 목표 설정 및 지표 관리

이어서 'ESG 시대의 기업의 환경경영 목표 설정 및 지표 관리'를 주제로 지평 ESG 센터의 정영일 경영연구그룹장의 주제강의가 이어졌습니다. 정 그룹장은 환경 영향 관리의 중요성과 주요 환경 관련 글로벌 요구사항의 트렌드를 짚으며, 유럽의 지속가능성 보고기준(ESRS)의 환경 지표별 내용 및 관리 주안점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기후 실사에서의 환경 목표/지표 관리, △EU 지속가능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 △자연자본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NFD)의 지표관리 특이점을 설명하며, 특히 LEAP 접근법은 ESRS에서도 환경 사안 중대성 평가 방법론으로 도입한 접근법으로 이를 자연영역뿐만 아니라 폭넓게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환경 목표 설정 노하우 및 기업사례를 공유하며, 끝으로 복잡한 환경 문제는 단일 회사가 처리할 수 없기에 부문별로 공동 이니셔티브를 도출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평 ESG센터 정영일 경영연구그룹장

3. 환경 목표/지표 관리 기업 사례 발표 -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이앤씨

다음 순서로 기업의 사례발표가 이어졌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박가이 선임은 LG에너지솔루션의 ESG 전략체계, 거버넌스 및 환경 정책, 배터리 산업의 방향성을 안내하고, 2030년까지 전 사업장 RE100 달성 및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등의 주요 환경 목표를 토대로 밸류체인 전반을 포괄하는 자원순환체계(closed-loop)를 구축하고 있음을 소개하였습니다. 이어 △공급망 탄소절감, △폐배터리 및 공정 스크랩 재활용/재사용, △환경 영향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제품 친환경성 강화 등의 다양한 과제를 소개하며 목표 달성을 위한 내부 시스템 고도화 현황을 공유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발표로 포스코이앤씨의 공병수 차장은 포스코이앤씨의 환경 경영체계와 현장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소개하며, △폐기물 관리 및 자원순환, △전과정 평가(LCA), △Off-site Construction(OSC) 공법 등 저탄소 공법 확대, △재생에너지 사업, △친환경 자재 개발과 운송단계 탄소 관리, △기후적응전략 개발, △생물다양성 보전활동 등 다양한 환경 및 탄소 경영 전략과 목표/지표 관리 현황을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목표 및 지표 설정도 중요하지만, 이를 실제로 실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실무 부서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KPI 설정을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목표 이행을 위한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박가이 선임



포스코이앤씨 공병수 차장

4. 참여 회원사간 현안 공유

마지막으로 기업별 환경 정책 및 목표/지표 관리 현안을 공유하였습니다. 참여사들은 △넷제로 이행을 위한 탄소배출량 관리, △폐기물, 용수, 원부자재 및 패키징 등의 자원순환, △오염 및 유해물질 관리, △제품책임 및 인증, △재생에너지 조달 및 에너지효율, △전기차 및 친환경 차량 전환,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 △공급업체 및 고객사 관리 등의 여러 환경 목표/지표 관리 및 KPI 설정 현황을 나누며, 지표 개선을 위한 각사의 다양한 노력과 업종별 고려사항, 추진 과제 및 애로사항을 나누었습니다. 끝으로 2023 Korea Leaders Summit 과 ESG위원회 세션, GEK 여성 리더스 네트워크 3차 세션 등 한국협회에서 진행 중인 활동에 대하여 소개하고 회원사의 참여를 독려하며 3차 미팅을 마쳤습니다.



[반부패 실무그룹 3차 미팅] 결과 공유

2023년 11월 2일

일시: 2023년 11월 2일(목), 오후 2시 ~ 5시

장소: E.NA 스위트호텔 R.ENA 컨벤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11월 2일(목) 3차 반부패 실무그룹을 개최하였으며, 총 21개 기업에서 31명의 실무진들이 참석하였습니다. 기업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및 반부패 관련 인센티브 제도를 주제로 한 이번 실무그룹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민간 부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개발 추진 배경과 국내외 동향, 세부 내용 등을 살펴보고, 한국지멘스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내부 반부패 관련 제도 운영사례에 대한 발표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및 참여기업/기관의 현안 공유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참여기업/기관(가나다순): 강원개발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롯데 유통군 HQ, 롯데쇼핑, 법무법인 지평, 삼성중공업, 아산시시설관리공단, 팬택씨앤아이, 팬택씨앤아이엔지니어링, 포스코홀딩스,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 전력기술, 한국지멘스, 한국콜마, 한국콜마홀딩스, 한독, 현대캐피탈, DL이앤씨, DRB동일, HMM, LG디스플레이

1. 인사말

UNGC 한국협회 유연철 사무총장은 실무그룹에 참여한 회원사 실무진을 환영하며, 여러 지속가능성 표준의 내용이 확정되고 있는 글로벌 동향을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EU 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과 지속가능성보고표준(ESRS)에서도 반부패 관련 지표를 다루고 있는 만큼, "글로벌 ESG 공시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통하여 부패리스크를 식별 및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UNGC 한국협회 유연철 사무총장



2.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K-CP) 및 안내서 소개

먼저 국민권익위원회 최승남 민관협력담당관의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하 K-CP)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K-CP는 해외 주요 지침과 공시, 반부패 관련 규범 등을 분석하여 거버넌스, 정책, 절차, 고위험 영역 관리, CP 문화, 모니터링, 공시 등 55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엇보다도 ESG경영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E, S, G 중 G(거버넌스)에 대한 대비가 취약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민간부문 K-CP에 대한 개발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기업에 해외 주요 지침과 반부패 관련 강령 등을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55개 지표를 통해 기업의 청렴윤리경영 체계를 진단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패방지 및 윤리경영 안내서에 민간부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는 것에서 더 나아가, 향후 경제단체와의 협의체 구축 및 기업 대상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 민간부문에 청렴윤리경영을 확산하고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최승남 민관협력담당관



한국지멘스 박종근 실장

2. 한국지멘스 반부패 관련 내부 인센티브 제도 및 휘슬블로잉 대응

이어 한국지멘스 박종근 실장의 '지멘스 반부패 관련 내부 인센티브 제도 및 휘슬블로잉 대응'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멘스는 과거 부패 스캔들로 인하여 내부통제의 허점을 인식하고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에 대한 개혁을 시행했음을 밝히며, 현재는 예방-발견-대응 순의 3단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준법 위험 관리와 전문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한 발견과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13개 언어 지원 및 24시간 이용 가능한 'Tell Us' 제도를 통해 컴플라이언스 뿐만 아니라 공급망, 내부 제도 등 모든 위반행위를 사내 변호사에게 제보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내부 제보에 대하여 'Speak Up' 문화를 육성하여 회사 차원에서 내부제보를 독려하고, 보복행위에 대한 보호와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발표를 마쳤습니다.

3. 한국무역보험공사 반부패 관련 제도 및 현황 공유

한국무역보험공사 오병원 차장은 청렴도 평가 실적에만 집중하면 실질적인 윤리경영에 취약해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습관화된 행동 방식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반부패 관련 제도와 현황 소개를 이어 나갔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청렴의식을 내재화하기 위하여 매년 가상사례를 통한 금품수수 금지 훈련을 실시하고, '윤리경영 신호등'을 도입하여 상시적으로 경각심을 갖도록 운영 중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청렴미션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반부패에 대한 임직원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것에 집중하고, 신고자 보호규정의 강화 및 홍보 확대 등을 진행한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오병원 차장



4. 참여사 현안 공유

마지막으로는 UNGC 한국협회 이은경 실장의 진행으로 반부패 실무그룹에 참여한 실무진들이 각 기업의 반부패 관련 제도와 현안을 공유하였습니다. 참여사들은 △ 반부패/청렴활동 활성화를 위한 마일리지 제도, △ 조직성과평가 내 ESG 활동 참여실적 반영을 통한 독려, △ 기부를 가장한 증뢰를 방지하는 사전 체크리스트 활용, △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관련 지침, △ 반부패 인식도 조사 시행, △ 이해관계자와 소액주주를 위한 사외창구 운영, △ ISO37001, ISO37301 인증 획득 및 관리, △ 부정행위와 미담을 함께 제보 받는 신고채널 운영 등에 대하여 서로 질문하고 답하며 활발한 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끝으로 향후 진행되는 UNGC Korea Leaders Summit 2023과 ESG위원회 세션 등 진행 예정인 활동에 대하여 소개하며 반부패 실무그룹 3차 미팅을 마쳤습니다.



UNGC 한국협회 이은경 실장



3 차 미팅을 끝으로 2023 년도 환경 실무그룹 및 반부패 실무그룹 활동이 마무리되었습니다. 2024 년에도 우리 기업의 지속가능성 내재화 및 역량강화를 위해 실무그룹을 이어 나갈 예정이니, 2024 년 각 실무그룹(1 분기 중 모집)에도 회사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

환경 실무그룹 - 김예영 연구원 (02-6954-2148) / gckorea@globalcompact.kr

반부패 실무그룹 - 안일곤 과장 (070-4327-5057) / gckorea@globalcompact.kr

자세히 보기

7. GEK 여성 리더스 네트워크 3 차 세션 결과공유 (11/1)

GEK 여성 리더스 네트워크 3차 세션 결과

일 시: 2023년 11월 1일(수)

장 소: ENA 스위트 호텔 컨퍼런스룸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는 지난 11월 1일(수) 회원사 중 50여개 기업 및 기관 임직원 대상 GEK(Gender Equality Korea) 여성 리더스 네트워크 3차 세션을 개최하였습니다. GEK 프로그램은 여성 리더십과 역량 증진 및, 기업 내 리더들에게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자 UNGC 한국협회가 2022년 말 런칭한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5월 1차, 6월 2차 세션을 개최한데 이어 이번 3차 세션은 기업 내 남녀 임직원들 모두의 성장과 상호 이해를 위한 얼라이십(Allyship)을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특별연사로 인지심리학 전문가 김경일 교수와 글로벌 인재양성과 DEI 정책의 선도기업인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김경록 대표를 초청해 진행하였습니다.

■ 인사말

먼저 UNGC 한국협회 유연철 사무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성평등 확대는 유엔의 지속가능한개발목표를 달성을 위해서도 필요 조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그리고 기업의 생산성 제고에도 큰 기여를 한다고 설명하며, 개개인이 이러한 난제를 풀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성평등을 위해 부족한 부분을 함께 인지하고, 보완하며, 서로 동기부여해줄 수 있는 '얼라이십(Allyship)'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세션을 통해 이러한 동료애를 함께 갖추고, 여성 리더십 증진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참석자들을 환영하고 격려했습니다.

■ 강연 1 : 김경일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 「뛰어난 전문가 vs 평범한 전문가」

첫번째 특별강연은 '뛰어난 전문가 vs. 평범한 전문가 : 다양성과 포용성이 역량인 이유' 를 주제로 김경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진행했습니다. 우선 문화나 사회에서 기능적으로 가정 및 직장 등에서 남녀 성별에 따라 역할을 구분하는 성 고정관념지수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며, 한국에서는 해당 지수를 남성화 지수라고 불릴 만큼 성별 임금격차, 여성 임원 비율 등 부문에서 매우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제도나 인식의 대전환도 중요하지만 작은 개선으로도 큰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점진적 개선'을 의미하는 '넛지(nudge)'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또한, 1980-90년대 유능한 여성들이 중요 업무를 부여받지 못하고 비주류 임무만을 맡았던 이유를 살펴본 연구를 언급하면서, 여성이 결혼 및 출산 등으로 근무 시간이 짧을 것이라는 가정에 입각했던 결과라며, 우리의 무의식속에 잠재되어 있는 편견에 대한 극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테크크런치 디스럽트(TechCrunch Disrupt)의 사례를 들어 성별과 무관하게 개인의 개성과 특출난 장점을 발전시켜 '고유한(unique)' 인재가 되면 대체 불가능한 인재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하며, 결국 AI로 대체될 수 없는 인간의 가치가 이 부분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인간이 가지는 '메타인지(meta-cognition)'와 '독특한 개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고유한 자아(unique-self)'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지식·기술·정보를 재가공하여 자신만의 정의를 이야기를 함으로써 AI시대에서도 조직내 대체 불가능한 사람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간의 고유성에 대해 시사하였습니다.

이후, 직장내 연륜있는 상사에게 얼라이십(Allyship)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연차와 경력이 쌓인 상사일수록 가용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액션을 취했을때 보상보다는 지금 당장 이행하지 않으면 도래할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경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 강연 2 : 김경록 슈나이더 일렉트릭 대표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DEI) 기업문화」

이어서 두번째 특별강연은 김경록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 대표가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DEI) 기업문화'를 주제로 진행하였습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다양성, 평등성, 포용성 정책 관련 20년간 역사가 이어져오고 있으며, 기업 운영 관점에서 포용적인 근무 환경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ESG 추진시 DEI가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포용적인 문화를 가진 조직이 재무 목표 달성도 높고 비즈니스 성과를 달성할 가능성도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아직도 전 세계에서 10억 인구는 에너지 없이 살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면서,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에너지 관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탄소 감축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구의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 여성교육과 역량 강화는 자연스러운 목표라며, 작년 기준으로 슈나이더 일렉트릭 이사회에서 여성 비율은 42%, 관리자 중 여성 비율은 27%, 신입사원 중 41%는 여성이라고 사내 여성 인재의 높은 비율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그는 "DEI 정책의 실현이 나의 삶에, 그리고 또 직장인으로서의 미래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직접 체감할 때 DEI가 경쟁력이 되고, 우리의 DNA가 될 수 있다"며 조직 구성원의 DEI 내재화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건설사와 같은 남성 중심의 업종에서 파트너 기관과의 협력시 여성 직원의 어려움이 있다는 고민과, DEI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에 대한 궁금증, DEI 정책과 기업 성과와의 관계 등에 대한 청중 질의에 답하며 강연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김경록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 대표

■ 마무리 : 런치 및 네트워킹

마지막 순서로, GEK 여성 리더스 네트워크 참여사 임직원들은 식사를 진행하며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여사들은 각 회사내 추진 혹은 기획중인 여성 리더십 강화 프로그램, 소수자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DEI 사업 현황과 효과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한, DEI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유관 부서와 경영진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협조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며,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지지를 지속해가는 조직문화 구축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GEK 여성 리더스 네트워크 3차세션 참여 임직원

* GEK 2기 참여사는 2024년 상반기 모집 예정입니다.

* 문의 : UNGC 한국협회 조연경 과장(070-4327-9767/ ykcho@globalcompact.kr)

자세히 보기

본부소식

1. UNGC, 지속가능 인프라에 대한 새로운 비즈니스 지침 발표



지난 10 월 16 일, 중국 베이징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기업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인 ‘유엔글로벌콤팩트 (UNGC)’는 정부, 기업, 학계 고위급 대표들 참석하에 개최된 일대일로(一帶一路) 이니셔티브(Belt and Road Initiative, BRI) 10 주년 기념 행사를 통해, 일대일로 정책에 따른 지속가능한 인프라 발전을 위한 지침과 평가 도구에 관한 지침서 발간을 발표했습니다.

「일대일로 정책내 인프라 부문에서의 UNGC 10 대 원칙: 민간 기업을 위한 실무 가이드(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와 「SDGs 에 대한 영향력 극대화: 일대일로 정책내 지속가능한 인프라 발전을 위한 기업 지침 및 평가 도구」는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기업이 혁신적이고, 경제 성장을 도모하며, 자원을 활용하여 즉각적인 요구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또한, 동 지침서는 일대일로와 SDGs 의 상관 관계를 시사함으로써, 기업이 지속가능성에 대한 글로벌 트렌드 가운데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 UNGC 10 대 원칙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방법과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UNGC 사무총장 산다 오잠보(Sanda Ojiambo)는 "인프라 개발은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을 도모합니다. 따라서, 인프라 사업에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책임 있는 비즈니스 관행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본 지침과 사례 연구는 기업들이 인프라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구축하고, 포용적인 세상을 위한 혁신적 플랫폼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본 지침서와 더불어 유엔의 첫 번째 온라인 플랫폼인 「일대일로 정책에 따른 지속 가능한 인프라 파트너십에 대한 데이터 허브」도 런칭하고, 「일대일로 정책내 SDGs 이행 촉진을 위한 높은 수준 협력에 대한 민간 기업의 지속가능성 증진 사례연구」 발간물도 발행되었습니다.

‘고위급 행동 위원회’에는 공공부문 리더, 기업 리더, 학계, 다자기구, 시민사회, 청년 대표 등 지역, 국가, 부문, 성별, 연령대를 불문하고 다양한 배경의 19 명의 위원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인프라 사업을 통해 SDGs 를 가속화하는 여정 속에 기업의 책임 있는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행동 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본 지침서 발간에 유엔평화개발기금(UNPDF)이 참여하였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프로젝트 완료에 필요한 재원을 제공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2. UNGC, 거버넌스 강화 및 부패 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 촉구



세계 최대 기업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인 유엔글로벌콤팩트(UNGC)는 오늘 전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패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강화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개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당사자의 반부패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UNGC가 추진중인 행동 촉구(Call-to-Action)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세계 경제를 위해 필수 요소인 반부패와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강조하며, 각국 정부가 이러한 내용을 2030년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의 중요 원칙으로 수용하도록 촉구합니다.

부패는 세계 곳곳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로, 기업과 개인을 포함한 민간 부문에 상당한 초과 비용을 초래하는 악영향을 끼칩니다. 게다가, 부패는 거래 비용을 높이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며, 장기적으로는 국외 및 국내 투자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유엔 부패방지협약에 기반하여, 2004년 채택된 UNGC 열 번째 원칙은 UNGC 회원사들이 뇌물수수 및 횡령 등 부패 방지뿐만 아니라, 기업내부 및 공급망 내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기업은 시민사회, UN 및 정부와 협력하여 보다 더 투명한 세계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기업들은 행동 촉구(Call-to-Action)에 서명을 통해 공식 서명자로서, 각국 정부에 다음 사항을 요구합니다:

1. 정부는 유엔 부패방지협약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전 세계 경제가 직면한 다양한 상황과 어려움을 고려하여 공평한 경쟁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급망 내 기업들의 비즈니스 청렴성을 증진하고, 위법 행위 적발 및 제재를 통해 부패 행위에 대한 면책 방지와 더불어 법적인 제재 수단을 강화합니다.

2. 특히, 공공 조달 및 투자 등 정부 의사결정시, 기업 지속가능성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SDGs 중심의 기업 청렴성을 향상시킵니다. 민관 협력시 이해 상충 부문을 관리하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는 등 거버넌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합니다.
3. 정부는 민관 파트너십, 대화 그리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인간과 환경을 위한 포괄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창출함으로써 거버넌스 및 반부패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합니다.
4.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 활용을 통해, 반부패 및 정보 기반 의사결정을 촉진하여 관리감독과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또한, 이해당사자들의 책임 강화를 위해 ICT 를 활용하여, 공공 및 민간 부문 거버넌스 및 반부패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 및 보고합니다.
5. 직장내 공정성과 청렴성을 확보할 것을 약속하는 등 기업가 정신 및 윤리적 리더십을 갖추기 위한 미래 비즈니스 리더 육성 교육을 실시합니다.

유엔 부패방지협약 20주년 기념 일환으로, 지난 9월 개최한 2023 UNGC 리더스 서밋 ‘기업 청렴성을 위한 리더 연합’ 세션 개최 계기 기업들이 각국 정부로 전달하는 동 행동 촉구문이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 이 행동 촉구문은 2023년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애틀랜타에서 개최되는 제 10차 유엔반부패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공표될 예정입니다.

[자세히 보기](#)

3. Forward faster 이니셔티브 달성을 위한 5 가지 방법



2030년까지 절반이 지난 시점이지만, 2030 아젠다에 명시된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는 아직 절반도 달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모두에게 더 안전한 지구와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기업은 지속가능성 여정을 가속화해야 하지만, 이 일은 기업만의 일은 아닙니다.

Forward Faster 이니셔티브는 성평등, 기후행동, 생활임금, 수자원 회복탄력성, 금융 및 투자 등 기업이 가장 크고 빠르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5 가지 실천 영역에서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행동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이니셔티브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각 영역의 실용적인 실행 항목을 한 가지씩 소개하여 더욱 신속한 목표 달성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성평등: 최고경영진의 지지 확보하기

Forward Faster 이니셔티브의 성평등 행동 가이드는 기업이 여성역량강화원칙(WEPs)에 서명을 통해 직장, 시장, 지역사회 전반에서 WEPs 의 7 가지 원칙을 준수하며, 성평등 촉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노력에는 최고경영진부터 참여가 필수이므로, 사내에서 최고경영진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기 바랍니다.

2. 기후 행동: 기존 분야별 지침 및 프로젝트 검토하기

효과적인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기후 행동이 기업이 속한 산업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혹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산업 부문별 제공된 지침 및 프로젝트를 검토하여, 회사 수요에 따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보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정확한 조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생활 임금: 의미 있는 대화에 참여하기

직원 및 CEO 와 진솔한 대화를 통해 회사 임금 및 공급망 운영이 생활임금 기대수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 직원의 복지를 증진하고 보다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하기 바랍니다.

4. 수자원 회복탄력성: 인터넷 영향력을 활용하기

Water Action Hub 를 사용하여 귀사가 사업을 운영하거나 관심 있는 지역의 수자원 정보를 지도화 하기 바랍니다. 지도화한 정보를 태평양 연구소(Pacific Institute)와 유엔글로벌콤팩트(UNGC)가 협력하여 만든 이니셔티브인 CEO Water Mandate 사무국에 게시함으로써 인류에게 필수적인 수자원의 책임감 있는 사용과 보존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5. 금융 및 투자: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

2030 아젠다 달성을 위해서 전세계 매년 3 - 5 조 달러 규모의 예산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SDGs 를 위한 CFO 연합」에 가입하여 지속가능성을 향한 전환에 힘쓰고 있는 동료 CFO 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귀중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활용하기 바랍니다. SDG 에 기반한 재무 전략을 통해 기업의 혁신과 지속적인 성공을 도모하며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조치를 기업 운영 전반에 도입하는 것은 단순히 지속 가능성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 사고와 행동을 통해, 미래를 주도하는 리더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기업들은 더욱 공평하고 유연하며, 지속 가능한 세상을 향한 여정에 앞장설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4. 직원들의 지속가능성 참여 촉진을 위한 5 가지 방법



유엔의 날(10 월 24 일)이 있는 10 월의 끝자락은 기업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기에 최적의 시기입니다. 경제계의 핵심 키워드인 지속가능성을 비즈니스 운영 전반에 걸쳐 도입하는 과정은 여전히 많은 기업에게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기업들은 기업 내 인식을 제고하고 SDGs 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전직원에 지속가능성에 대한 주인의식을 부여하면서 진정성 있고 적극적인 진전을 이뤄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아카데미는 '2030 Builders'와 협력하여 “지속가능성 실현하기: 「직원들의 참여 촉진 및 역량 강화」 심층 세션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의 원활한 시작을 돕기 위해, 온라인 교육 과정과 2030 Builders 프레임워크 5 가지 단계를 소개하여, 지속가능성에 대한 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1. 인식 제고

사내 커뮤니케이션, 소그룹 미팅, CEO 의 공식 성명서 제출을 통해 최고 경영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회사와 직원들에게 지속가능성이 우선순위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2. 내부 지지 확보

지속가능성에 대한 회사의 목표와 직원의 희망목표를 가능한 한 일치시켜, 직원들에게 명확한 역할을 부여하고 글로벌 영향력을 창출합니다. 더불어, 지속가능성과 연계된 성과 관리 지표를 통해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합니다.

3. 전문 지식 공유 및 역량 강화

의사결정 협업 교육 등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정보와 도구를 제공하여, 직원들이 자신의 역할과 관련된 지속 가능성 이슈에 대해 자세히 이해하고, 조직 내에서 SDGs 아젠다에 대해 확장된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직원들에게 정보를 과도하게 제공하는 것이 아닌, 직원의 주인의식을 함양하며 교육과 기술 개발을 위한 절차임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4. 행동 실행

직원들이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의사 결정을 보다 용이하게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바랍니다. 지속가능성 추진을 통해 얻은 영향과 성공 사례를 분석하고 보고하여, 회사의 목표를 개인 및 집단 행동과 연계합니다.

5. 지원 장려

직원들이 직접 진행 중인 지속 가능성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사내·외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기 바랍니다. 또한, 직원들의 노력을 내·외부적으로 인지하고, 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들을 도입합니다.

상기 5 단계 실천을 통해 직원들의 주도적인 지속가능성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참여 독려와 직원의 역량 강화 지원은 필수적입니다. 직원 개개인의 진정성 있는 지속가능성 노력이 확대되면, 긍정적인 문화 조성 and 조직 내 회복탄력성에도 이점으로 작용합니다. 직원들의 역할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여러분은 SDGs 달성에 크게 기여하고 직장 내 지속가능성 문화의 선도자가 될 것입니다.

[자세히 보기](#)

UNGC 회원사 ESG 우수 사례



1. 기업 소개

DRB 는 1945 년 창립하여 국내 최초로 고무벨트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으로, 건설, 농기계, 산업용 동력 벨트부터 크롤러&슈퍼드, 토목건축자재, 면진제진시스템, 자동차부품, 공장자동화설비, 헬스케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거듭하며 전 세계 산업 발전과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DRB 는 80 년 가까운 세월 동안 시대가 요구하는 제품을 개발하며 전 세계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해 왔습니다. 현재는 제조업 기반 혁신기업의 역량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100 년을 인류와 지구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ESG 이행 전략 및 현황

DRB 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지속 가능한 행복 및 지구촌 발전을 추구한다]는 ESG 비전하에 핵심전략을 수립하여 ESG 경영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ESG 비전 및 전략 체계

DRB 는 현재와 미래를 포괄하는 지속가능성을 기업의 가치 기준으로 삼아 ESG 경영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ESG 에 대한 인식을 임직원의 업무와 일상에 반영하여 경제적 가치 창출과 더불어 환경, 사회적 측면에서도 책임을 다하는 ESG 경영이 구현될 수 있도록 ESG 추진 체계를 수립하였습니다.



➤ ESG 추진 조직

DRB 는 ESG 비전과 핵심 전략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이사회 산하에 ESG 위원회, 분과위원회, 그리고 실무추진 TF 를 구성하였습니다. ESG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ESG 전략 세부 과제를 수립하고 기업의 경영 방향성과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무추진 TF 와 분과위원회를 통해 달성한 ESG 성과를 경영진과 ESG 위원회에 보고하고 방향성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ESG 경영을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3. 환경경영

가. 환경경영전략

(1) DRB 환경경영 비전

DRB 는 지구 환경 보호와 기후 변화 대응을 경영 활동의 주요 의제로 인식하고 함께 발전하는 기업 시민으로서 지속가능한 저탄소 친환경 경제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DRB 환경경영 미션

DRB 는 기후 변화 대응과 지구 환경 보호를 통해 인류의 삶의 질 향상과 지구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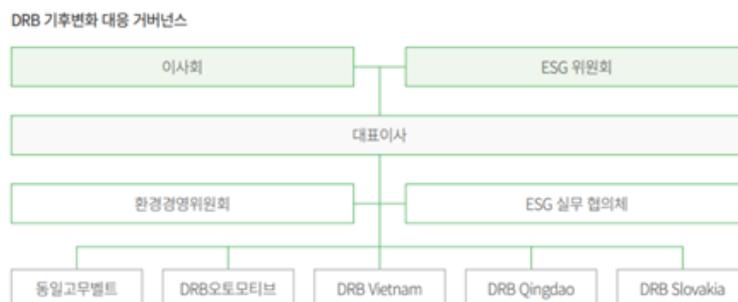
(3) DRB 환경경영 목표

DRB 환경경영 핵심 전략 및 Goal			
기후변화 대응	순환경제 구축	친환경 소재 선도	수자원 보호
- 탄소중립 - 신재생에너지 100%	- 매립 Zero - 천연원자재 Zero 및 재활용 원자재 확대 - 재활용률 100%	- 유해물질 Zero - 친환경 소재 전환 및 기술, 인증 확보	- 수자원 100% 재활용 - 사용량 감축 - 정화기술과 인프라 확보

나. 환경경영 내재화

(1) DRB 환경경영 조직 구축

DRB 는 환경경영위원회, 환경관리조직 그리고 환경 담당자 등 환경경영 이행을 위한 지배구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 환경경영위원회

DRB 는 국내외 계열사 및 전 사업장의 환경 관련 부서로 구성된 환경경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환경경영정책 재개정, 기후변화대응, 탄소중립 목표 수립, 중장기 환경 투자 계획 그리고 환경경영 중점추진과제 선정 및 성과 공유 등 중대한 환경경영 사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위원회 회의 결과는 각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회 내 ESG 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환경경영에 대한 중대한 의사결정은 이사회 결의에 따르고 있습니다.

DRB 는 환경경영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환경 이슈를 파악하여 리스크 대응 방법을 선제적으로 강구하고 있으며, C-Level 의 의사결정권한을 가진 환경경영위원회를 필두로 보고 체계를 일원화하여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3) 환경경영 전담조직

DRB 는 국내외 계열사 및 사업장별 환경경영 전담 조직인 환경안전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안전팀은 수질, 대기, 화학물질, 폐기물 등 다양한 환경분야 대한 전문가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안전팀은 관련 부서들과 함께 환경경영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환경설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인허가 준비, 환경자본 보호 및 복원, 사업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배출관리, 환경 리스크 파악 및 개선, 환경경영 확산·전파, 환경 관련 고충 접수와 처리, 기타 대외협력 활동 등 환경경영 관련 모든 활동들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 기후변화 대응 목표

DRB 는 2050 년까지 국내외 계열사 및 전 사업장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당 탄소중립 목표 및 이행방안에 대해 국내외 구성원, 고객, 그리고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하였습니다.

DRB 오토모티브, DRB 슬로바키아, DRB 청도의 경우, 2045 탄소 중립 실현을 목표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구축하고 구체적인 신재생에너지 전환 계획을 마련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DRB 는 전 사업장의 탄소 배출량을 2021 년 대비 2025 년까지 30% 저감하고, 2040 년까지 50% 저감하는 점진적 감축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30 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15%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4. 사회 [People and Culture]

가. 인권 인식개선 교육 확대

DRB 동일, 동일고무벨트 그리고 DRB 오토모티브는 구성원의 아동권리옹호 인식을 개선하고 ESG 실무추진 TF 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를 통해 각 법인 인권 관련 부서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아동권리 경영원칙(CRBP) 교육을 연 1 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 년 11 월에 DRB 동일, 동일고무벨트,

DRB 오토모티브 인권 관련 부서 담당자 총 13 명은 아동 친화기업의 정의 및 아동권리 경영 10대 원칙, 아동권리 경영원칙 이행 3 단계(정책선언-인권실사-구제) 및 이행지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활용 방법을 학습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아동권리 경영원칙을 기반으로 정책, 절차서, 업무 매뉴얼을 개정하고 관련 부서 중점으로 지표를 선정하여 KPI 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나.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

DRB 는 2022 년부터 외부공급자의 ESG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동반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를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ESG 관점의 공급망 관리를 확대하기 위해 DRB 는 2022 년 녹색구매 방침을 제정하여 사내 환경 인증 제품 구매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공급, 운반, 하역 등 전 과정에서 친환경성을 고려해 녹색제품을 구매하고, 신규 개발 업무 진행 시에 최우선적으로 친환경 자재 구매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DRB 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인류의 미래와 환경을 생각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광물 구매를 준수하겠다는 선언을 표명함으로써 서아프리카 분쟁 지역, 아시아, 중동 등 특정 국가 내 지역으로부터 광물 채굴 시 발생하는 인권 침해, 환경 파괴, 분쟁 단체 자금 유입 등의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있으며, 외부공급자 현황 조사 시부터 해당 유무를 확인하는 등 책임감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공급자 선정 시 지역우수기업,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을 우선 검토하고 있으며, 녹색구매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과 천연자원 보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여 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DRB 는 단계적인 녹색구매 규모를 상향 확대하여,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5. 거버넌스

가. SDGs 기여 목표 및 참여 중인 글로벌 이니셔티브

DRB 는 글로벌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UN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당사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의 방향성을 맞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사업과 연관성이 높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중심으로 경영 활동의

긍정 및 부정 영향을 분석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여 향후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환경 (Environmental)			
	친환경경영	자원순환	산업폐수 및 생활 오수 정화용수 재활용
			
	유해물질저감/폐기물관리	기후변화대응	친환경 기술 확대
			
대기오염 저감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연료 사용	생태환경 보전 및 생물 다양성 확보	
인권 및 노동 (Human Right & Labor)			
	인권경영	상생의 노사관계 구현	다양성 확보 및 차별금지 (성별, 인종, 국적 등)
			
	동반성장 및 공급망 관리 활동	고충처리 및 인권침해구제 (DRB sangdam4u 등)	인재육성 및 임직원 역량 강화
			
산업 안전 및 임직원 보건 환경 안전 보건 준수 의식	여가친화 및 가족친화 인증	지역사회공헌 및 기업시민 역할 강화	
지배구조 (Governance)			
	윤리경영(반부패)	정보 보안	이사회 및 ESG위원회 운영
			
	공정거래 자원준수	준법 및 리스크 관리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UNGC, UNICEF)	투자자 정보 및 조세 정책		

(출처: DRB 홈페이지)

나. 글로벌 인권 협약 및 이니셔티브 준수

DRB 는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유엔 기업과 인권에 대한 지침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P)’의 인권 원칙을 지지하며 이에 근거한 ‘유엔글로벌콤팩트 10 대 원칙 (UN Global Compact Ten Principles)’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DRB 동일과 동일고무벨트는 2021 년 4 월,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에 가입하여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의 4 대 분야 10 대 원칙에 대한 자발적 준수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유니세프와 협업하여 ‘아동권리와 경영원칙’에 부합하는 핵심 정책을 제정하는 등 인권경영을 체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DRB 동일은 2022 년 법무부가 주최한 [기업과 인권 세미나(2022.10.28)]에서 국내 인권경영 우수 기업 사례로 선정되어 DRB 의 글로벌 고객사 인권실사 및 공급망 ESG 평가 대응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아동권리와 경영원칙(CRBP)’ 10 주년을 기념하여 주최한 [유니세프 아동친화기업 포럼(2022.11.7)]에서 DRB 의 아동 인권 경영 우수 사례와 함께 ESG 인권 경영 전략, 정책, 이행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자세히

UNGC 한국협회 & 회원사 뉴스

1. "돈 버는게 다가 아냐"…스타트업들이 'UNGC' 문 두드린 이유



- 기업용 웰니스 플랫폼 '달램'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헤세드릿지는 설립 단계부터 UNGC의 10대 원칙과 SDGs를 기반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핵심 가치로 유지해 오며, 최근 UNGC에 공식 가입했다.
- 헤세드릿지는 기업과 직장인들의 웰니스 및 건강을 책임진다는 미션 하에 달램 서비스를 설계하였으며, 고객사 입장에서는 별도의 전문인력을 두지 않고도 임직원들에게 양질의 웰니스를 제공하며 ESG 경영을 실천할 수 있다.

머니투데이

2. KB증권, 국내 금융사 최초 '유엔 CFO연합' 가입



- KB증권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DNA를 전사적으로 심기 위한 전략을 본격화했다.
- 이를 위해 KB증권은 국내 금융사 최초로 국제연합(유엔)이 CFO(최고재무관리자)를 대상으로 결성한 연합체에 가입해 CFO 차원에서 ESG사업이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KB증권은 ESG 선도 입지를 다지면서 ESG 투자·상품·대출사업 포트폴리오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헤럴드경제

3. SK이노베이션, 이공계 여성 인재 키운다



-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5일 대전 환경과학기술원에서 '제10회 케이걸스데이' 개막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 산업부, 교육부 등이 주최하고 KIAT가 주관하는 케이걸스데이는 중·고등학교 여학생의 이공계열 진학과 산업현장 진출 지원을 위한 기술 체험 행사다. 공학계열 여성 인력 비중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14년 마련됐으며, 올해로 10회째를 맞는다. 약 1500명의 참여 학생들은 이달 25일부터 31일까지 전국 각지 30여개 산업현장을 방문한다.

여성신문

4. 네이버, 사옥 전력 50%이상 재생에너지로 운영



- 네이버의 제 2 사옥인 1784 의 전력의 5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운영하게 된다. 네이버는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수력 발전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직접 전력 거래계약(PPA)을 체결했다고 25 일 밝혔다.
- 네이버는 이번 협력으로 1784 가 수력, 태양광, 지열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국내 최초의 건물로 거듭났다고 설명했다.

서울신문

회원사 안내

1. 신규·재가입 회원

10 월 18 일부터 11 월 14 일까지 UNGC 에 가입한 신규 회원사는 2 곳입니다.

- LX 판토스
- 캠퍼시설관리

2. CoE 제출회원

10 월 18 일부터 11 월 14 일까지 2 개 회원사가 CoE 를 제출했습니다.

- 한국해양진흥공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 올해 새롭게 런칭하는 이행보고서(Communication on Progress, CoP) 디지털 플랫폼이 11 월 16 일부터 재개되어, UNGC 회원사는 11 월 16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플랫폼에 접속해 CoP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올해 CoP 디지털 플랫폼 오픈이 지연으로 인해 2023 년도 CoP 제출이 선택 사항으로 변경되었으며, 올해 CoP 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회원사 상태(status)가 "미보고(Non-communicating)" 또는 "제명(Delisted)"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비영리 회원은 기존 정책에 따라 가입일로부터 2 년 이내 첫 CoE 를 제출하고, 이후 2 년마다 CoE 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 회원사로 분류되며, 이후 1 년 후에도 CoP/CoE 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ed)됩니다.

3. UNGC 로고 사용정책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과 이해관계자가 유엔글로벌콤팩트와 10대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에 한하여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로고 사용 허가 요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상태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이며, CoP/CoE 가 active 인 상태
- 기업의 연간 총 수익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참여레벨을 선택한 단체

4. 한국협회 가입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한국 내 이행과 확산을 위한 세계 네트워크의 한국 대표기관입니다. 회원사는 한국협회 참여를 통해 회원 브랜드 가치 전파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회원사 간 상호 교류 및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방법 및 참여 혜택 바로가기](#)

기업 정보 및 담당자 변경 시 아래와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UNGC 본부 사이트(www.unglobalcompact.org)에서 관련 정보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UNGC 한국협회 사무처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 연락(메일/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 층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 Home: www.unglobalcompact.kr

Blog: http://blog.naver.com/ungc_korea